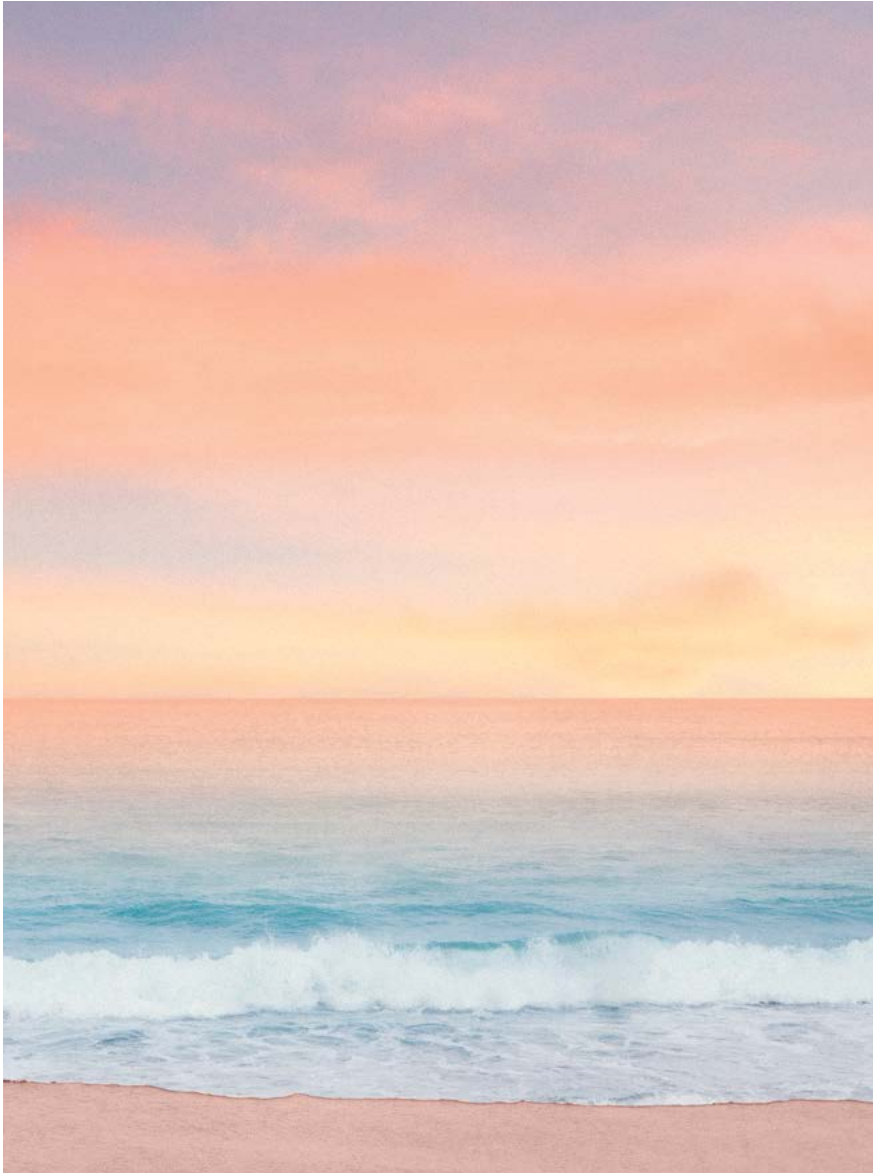


202508

소망
마음
나눔
꿈



후 반 기
구 역 지 도 자
수 련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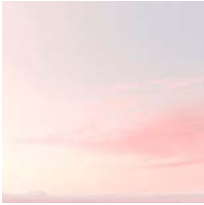
강사 **김경진** 담임목사

일시 **8월 29일(금)** 10:30

장소 **소망교회 본당**

CONTENTS

August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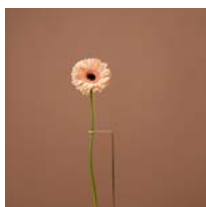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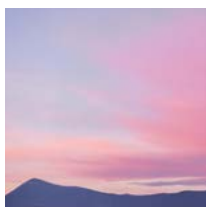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바라보고 바라볼 것은	4
깊어지는 영성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김경진	6
목상에 붙임 어둠 속의 소망 비노스 라마찬드라	10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열왕기하	16
8월 본문 열왕기하	20
1주(8/4) 2주(8/11) 3주(8/18) 4주(8/25)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손은혜	66	가정예배 8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186
소망사랑방 언제나 나의 목자되신 예수님 따라 문시안	100	소망이 가득한 곳 십자가 앞에 선 나 채연주	192
달음 답음 자녀, 하나님의 선물 이순기	138	예배자의 길 8월, 우리의 고백 김수정·윤선경·최소라	194
공간공감 언더우드가 기념관 홍성찬	176	말씀의 흔적 초대교회에서 성경의 번역과 확산 최형근	198
이달의 기도 받은 은혜를 세어 보나니	180	성경과 상징 불: 신비의 힘 고원석	202
믿음's life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의지 조준식	182	소망뉴스 8월 소식	206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욕망을 따라갔던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자비로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삶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없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는 영성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글 김경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으로부터 온 상처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시편 91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 91:1-2)

성경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아예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도자의 현실은 이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 91:3)

기도자는 이미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크게 화자가 세 번 바뀝니다. 우선 ‘ 나 ’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 91:2)

기도자인 ‘나’는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이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표현이 바뀝니다. 이제는 기도자가 ‘ 나 ’라는 표현으로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 91:3)

기도자는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기도이자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



어둠 속의 소망

글 비노스 라마찬드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성에 대한 욕구라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이사야 50:10에서 유배 생활로
절망에 빠진 공동체에 대한 이런 도전의 말씀을 접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위대한 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로 시작하지만(히 11:1),
바로 이어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

순종과 무지는 도입부의 선언과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다!

**믿음은 신실한 순종이며,
질문을 품고 확실성 없는 삶을 살아 내는 것이다.**

- 비노스 라마찬드라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IVP, 2025) 227~228쪽.